

교안 개발 : 리딩(R) 리딩(L) 에듀
 리딩(Reading) 리딩(Leading) 에듀는 '독서로 생각을 선도하는 연구소'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독서논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 번 읽어야 아는 바보

김흥식 글 | 김수자 그림
 파란자전거 | 9,800원 | 160쪽 | 초등 고학년

교안 개발 : 김혜숙

책 소개

10세에 글을 깨치고, 20세에 첫 글을 짓고, 59세에 과거에 급제한 백곡 김득신.
 “바보”에서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기까지 그의 공부 법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400년 전 서재에 꽂힌 책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바보 도령 김득신의 치열한 책 읽기가 펼쳐집니다.

독후활동 주제망



독후활동 시작하기 선천적인 재능 & 후천적인 노력

♥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발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렇다면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박지성 선수의 발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이 책의 저자는 너무 가난했던 탓에 몹시 어렵게 구한 위인전 한 질을 사게 되고, 그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어준 그 책들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책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치열한 노력으로 자신의 삶과 이름을 만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조선 시대의 참된 지식인 백곡 김득신이에요. 그의 ‘묘비명’에 남겨진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 김득신의 묘비명 -



독후활동 주제 1 고대 중국서와 한자성어

이 책은 조선 시대에 읽었던 고대 중국의 책들이 주인공이에요. 등장인물인 책들이 조선 시대의 독서광 김득신의 어린 시절을 지켜보면서 책들끼리 서로 수다를 떨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책들의 세상이 펼쳐지지요.

다음 <보기>는 책 속에 나오는 주요 책들이에요. 제시된 각각의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보세요.

《사기》	《구장신술》	《산해경》	《천공개물》	《십팔사략》	《산학계몽》	《주역》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한자성어

1. 천우신조 (교재 135쪽)

종이가 워낙 귀한 때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책은 불쏘시개로 쓰는 게 일반적이는데, 나는 천우신조로 살아남았으니 그건 순전히 마님의 덕이었다.

- 한자어 및 음(音)과 훈(訓) :
- 뜻 :

2. 일필휘지 (교재 128쪽)

어르신은 사라진 글자들을 일일이 붓으로 썼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책을 찾아보거나 하는 일이 없이 일필휘지로 써 내려갔다는 사실이다.

- 한자어 및 음(音)과 훈(訓) :
- 뜻 :

3. 진인사대천명 (교재 87쪽)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한다.

- 한자어 및 음(音)과 훈(訓) :
- 뜻 :

4. 독서백편의자현 (교재 8, 120, 125쪽)

예나 지금이나 뛰어난 선비들은 모두 ‘독서백편의자현’을 좌우명 삼아 학문에 임했다.

- 한자어 및 음(音)과 훈(訓) :
- 뜻 :

독후활동 주제 2 백 번 읽어야 아는 바보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 보세요.

1. 《천자문》은 서당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인데, 8세가 된 득신은 이러한 《천자문》을 겨우 두 글자밖에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2. 드디어 득신도 《천자문》을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천자문 외우기를 마친 득신에게 아버지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3. 득신의 《천자문》 외우기가 끝났을 때 책은 해지고 닳아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한 책을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 새 책처럼 다듬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4. 《십팔사략》은, 득신이 책 한 쪽을 외우는 데만도 며칠씩이나 걸려서 처음엔 바보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역》 할아버지는 《십팔사략》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5. 책들은, 사람을 잠들게 만드는 '수면향'을 내뿜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기》가 득신에게 수면향을 내뿜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아버지가 득신에게 과거 시험을 꼭 보라고 한 이유를, 아버지가 강조한 '학문의 진정한 의미'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세요.



7. 당시 중국에서는 엄청난 수의 책이 새로 태어나고 그러한 책들이 다른 나라로 퍼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살았던 득신도 그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이 다른 나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로 더욱 널리 퍼져 나가도록 힘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8. 결국 득신 어머니의 도움으로 《사기》는 고치고 다듬어져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기는 하지만, 책꽂이 꼭대기에 모셔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400여 년이 지난 2015년 어느 날, 득신이 수만 번 읽었던 그 《사기》가 스스로 어항에 자신의 몸을 던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9. 《사기》가 스스로 어항 속에 몸을 던질 때, 그 책 속에서 후손들에게 쓴 득신의 편지가 발견되었어요. 득신이 후손들에게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략)

나는 남들보다 백배 더 노력했다. 특히 《사기》의 〈백이전〉은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수백 번을 읽었으나 뜻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읽고, 읽고 또 읽었다. 결국 〈백이전〉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읽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백이전〉을 읽다 보니 평생 십만 팔천 번을 읽었다. 그 외에 웬만한 책은 만 번을 읽었고, 59세 때 과거 시험에 급제할 수 있었다. (중략)

- 갑자년(1684년) 새해에 백곡 김득신이 쓰다 -



독후활동 주제 3 책의 역할, 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독서 감상문 쓰기

④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다음 아래의 지시문을 읽고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책을 대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책의 역할과 책을 대하는 올바른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세요.

(가) 《사기열전》은 방 한가운데에 펼쳐졌다. 어머니는 해진 곳에 딱 맞게 종이를 자르고 밥알로 만든 풀을 고이 발라 붙이고, 찢어진 곳에는 종이를 손톱 넓이로 좁고 길게 자른 후 찢어진 길이에 맞추어 풀로 붙이셨다. 또 아버지는 사라진 글자들을 일일이 손수 붓으로 써넣으셨다.

(나) 서연이는 방에 들어오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몇몇 만화책 친구들만 펼쳐 볼 뿐 책꽂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책꽂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책꽂이뿐만이 아니라 책꽂이 위의 선반까지 책으로 가득 차 돌 데조차 없었다. 우리는 책꽂이 대신 방 이곳저곳에 뒹굴거나 구석에 쌓여 지내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서연이는 책을 사 오면 두세 번 재빨리 읽은 다음 구석에 처박아 두고 또 다른 책을 사 오기 바빴다.

(다) 종이의 발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중국인 채륜이 종이를 발명한 후에도 서양에서는 종이를 발명하지 못했고, 결국 수백 년이 흐른 뒤 중국에서 종이를 수입한 다음에야 종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 종이 없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도, 문명도, 학문도, 삶의 기록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④ 독서 감상문 쓰기

● 인물 이야기로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

- ☞ 인물의 업적보다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중점을 두어요.
- ☞ 인물의 삶 속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본받을 점을 명확하게 되짚어보아요.
- ☞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룬 것처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정해요.
- ☞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고쳐야 할 습관,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요.

처음	
중간	
끝	